



나주 배+영주 사과 달콤새콤 '홍동백서' 알콩달콩 '동서화합'

사과하니 배가 됐다.
영·호남의 뿌리깊은 갈등에서 벗어나 나주와 경북 영주가 손을 잡고 지역 대표 과일을 판매하니, 매출이 경종 뒤편었다. 영주 사과와 나주배의 공동 마케팅인 '사과하면 배가 되는 기쁨' 이야기다. 매출 신장 뿐 아니라 이 마케팅을 통해 나주와 영주는 마음속 벽을 허물고 지역간 화합이라는 더욱 큰 선물을 받았다.

△과일처럼 달콤한 영·호남 화합=나주시와 영주시가 손을 잡고 지역 대표 과일의 공동마케팅에 나선 것은 밀려드는 외국산 때문이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수입 과일에 대형 유통회사에서 32%를 점유하면서 활로를 찾기 위해 이색 마케팅이 필요했다.

나주시와 영주시는 지명에 '고을(州)'자가 들어가는 지자체들의 모임인 '전국 동주(同州) 도시 협의회' 회원으로 그동안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또 배와 사과의 전국 최대 산지인 두 자치단체는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행사장에서 나주의 배와 영주의 사과를 서로 나누는 경험을也有了.

수확 시기가 비슷한 두 과일이 좁은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고 한 상자에 담아 공동 브랜드로 출시해 상생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에 이르렀다.

영·호남 농업의 희망을 담고 있는 이 발상은 배·사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구체

화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창조지역사업'에 '사과하면 배가 되는 영·호남 기쁨 창조사업'을 공동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양 지자체가 상생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8억원을 편성했다.

품이 탁월한 성공을 거둔 데에는 브랜드 마케팅과 참신하고 다양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결합했기 때문이다.

상품 브랜드인 '홍동백서'와 '에사랑'에는 스토리텔링이 효과적으로 스며들었다. '홍동백서'는 제사상을 차릴 때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착안해서 동쪽(영남)의 붉은 과일 영주 사과와 서쪽(호남)의 흰 과일 나

또 명동역과 김포공항 대합실에 각각 20초짜리 공동 브랜드 홍보 전광판 동영상 광고를 시작했다.

△화합이 거머들인 눈부신 성과=나주시와 영주시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형 유통회사인 이마트와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설 시즌에 맞춰 혼합 상품인 '홍동백서'를 출시했다. 처음 출시된 '홍동백서'는 배와 사과를 각각 6개씩(7.5kg) 담았다.

'홍동백서'는 이마트 전국 150개 매장에서 총 1만4300세트가 팔려 10억7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이마트와의 협약은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공동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나주배·영주사과 혼합세트 595.7t(42억2200만원)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 올해 설 명절에는 이미 418.5t(26억4200만원)을 달성했다.

나주시와 영주시는 공동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대형 유통 회사뿐 아니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재 개발도 마쳤다.

나주시 관계자는 "과일 공동 마케팅에 이어 양 지역간 민간 교류를 늘려가는 등 다양한 동서화합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2012년 '영·호남 기쁨 창조사업' 공동 신청 선정 수확 시기 비슷한 두 과일 한 상자에 담아 판매 참신한 스토리텔링 결들여 공동브랜드 출시 이마트와 협약... 지난해 42억원 매출 올려

△스토리텔링 재미 등 이색 마케팅=이들 지자체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포장에 제작하는 등 공동 상품 개발을 시작했다.

또 공동 브랜드 개발, 대도시 특판 행사, 소비자 팸투어, 홍보소형 공동 판매 등 다양한 공격적인 판촉 및 홍보 활동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팸투어를 통해 가을 수확기 때 인원이 적은 배를 직접 손으로 수확할 수 있는 배따기 체험 기회 등을 제공했다.

이 같은 나주 배와 영주 사과의 혼합 상

주 배를 한데 포장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화합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에사랑'은 품격과 예의, 정성을 표현하는 브랜드다. 나주 배와 영주 사과 혼합 상품은 귀한 분에게 예의와 정성을 다한다는 속뜻이 담겨있다.

지난해 4월부터 경북 영주시와 나주시는 서울의 강남구 논현동 샵동이빌딩 등 대형건물 곳곳에 "우리 결혼했어요 영주 사과·나주 배"와 "달콤새콤 사랑 이야기 나주 배·영주 사과"이란 내용의 광고판도 내걸었다.

나주시 가장 비싼 땅 m²당 202만원

올해 나주시내 가장 비싼 땅은 1m²당 202만원인 중앙동 23-2번지로 조사됐다. 또 가장 싼 땅은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산 27번지 자연림(1m²당 281원)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개별 토지 24만7920 필지에 대해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올해 나주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지역은 금천면·산포면 지역으로, 이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지역의 1단계 준공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나주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은 나주시 홈페이지나 전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jeonna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기준 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활용하게 된다. /나주=정현철기자 chung@

8월 이전 한국전력거래소 사회공헌 활동 활발

오는 8월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가 지역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역 초·중·고·대학생 7명에게 장학금 1840만원을 지급하고, 독거노인 말발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최근 신규직원 20여명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 전력 시장과 전력 계통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 전력거래소 직원 310명은

오는 8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한 기업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나주=정현철기자 chung@

버스노선 신설·통폐합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나주시가 빗가람 혁신도시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대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에 나선다.

나주시는 빗가람 혁신도시에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고, 일반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 노선 신설, 통·폐합, 운행횟수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 운영 지원금 지급방식을 기존 교통량 조사에서 수지 분석 결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용역을 의뢰했다.

또 도로가 협소해 버스 운행이 불가능

한 44개 마을에 대해 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수요응답형 운송체계'와 일명 '마을택시제'를 도입,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는 나주 시·군 통합 이후 19%년부터 동일 행정구역에서는 탑승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한 요금을 받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오지, 벽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선의 신설 및 연장으로 운송 수입이 감소하면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초래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지난해 열린 '홍동백서' 상생을 위한 공동워크숍.



나주배·영주사과 공동마케팅 소비자 초청 팸투어.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4년 6월 1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4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교학처 (062)805-1112, 1063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임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